

자본주의로 인해 해체되어 가는 농촌의 생활상

- 히라바야시 다이코의 「야풍」을 중심으로 -

이상복*
sblee@syu.ac.kr

<目次>

- | | |
|---------------|-------------------|
| 1. 서론 | 3. 오센이 말하는 여자의 일생 |
| 2. 노동착취의 농촌실상 | 4. 결론 |

주제어: 여자의 일생(life of a woman), 지주(landowner), 출산(childbirth), 소작농(tenant farmers), 자본주의(capitalism)

1. 서론

히라바야시 다이코(平林たい子:1905년10월3일-1972년2월17일, ‘다이코’로 약칭)는 정치와 사회 문제 뿐만 아니라, 남성 위주의 사회구조에서 여성이 직면한 고통과 슬픔을 상세하게 묘사해 온 프롤레타리아 작가로, 작품의 대부분은 자전적인 요소가 강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초기작품에서는 자본주의화 되어 가는 농촌의 생활상을 부각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다이코는 이들 작품에서 봉건적 가부장제, 이에(家)제도에 의해 억압당하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폭행을 행사하는 남성을 비인간적인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야풍(夜風)」¹⁾ 역시 초기 작품에 속한다. 다이코의 고향으로 알려진 신슈 스와(信州諏訪) 주변의 농촌을 배경으로, 산업화 기조에 의해 지주들이 전기회사 주식과 제사공장 부지 확보를 위해 소작지를 몰수해 가는 과정 속에서 희생당하는 소작농민들의 고통을 잘 묘사해내고 있다. 소작인들은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해도 소작료에 대한 부담감으로 힘들었지만, 그나마 토지를 몰수당해 공장노동자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다. 그에 비해 지주들은 회사 주주가 되고 더욱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었다.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소작 빈농인 스에키치(末吉)와 누나 오센(お仙), 형 세이지로

*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교수
1) 1928년 3월 『문예전선』에 발표.

(清次郎)가족을 비롯해, 같은 소작 빈농인 요노스케(陽之助) 부부의 생활상을 중심으로 그리고 있다. 우선 스에키치 가정을 보면, 장남 세이지로는 집을 떠나 제사공장의 누에고치를 건조하고, 스에키치가 본가에 남아 대를 이어 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남편의 사망으로 실가로 돌아온 오센은 닭을 키우면서 가사를 전담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센이 일용직으로 모내기를 하면서 알게 된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 출산일이 가까워지자 외부의 소문이 두려워 바깥출입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오빠 세이지로는 오센을 구타하기 시작한다. 심지어 산통을 느끼는 오센에게 집에서 출산하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는다.

선행연구에서는 “해체되어 가는 농촌과 거기에 살고 있는 농민의 모습”²⁾, “사회저변에 억압받는 빈농이 여자를 더욱 억압”³⁾한다는 등, 자본주의 경제의 침투 속에서 살아가는 “소작 농민의 생활”⁴⁾을 잘 그려내고 있다는 평이다.

본고에서는 자본주의 도입으로 해체되어 가는 어수선했던 농촌과 빈농의 생활모습 뿐만 아니라, 오센이 말하는 “여자의 일생”에 중점을 두고 당시 여성의 삶을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2. 노동 착취의 농촌 실상

러일전쟁 후, 복잡해진 경제 구조 속에 농촌마을까지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빈농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치솟는 물가와 자식들의 교육비 충당을 위해 논을 팔고 소작농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래도 생활이 어려워지자 농사 틈틈이 시간이 나는 대로 제사공장의 석탄을 나르는 등,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 나서야만 했다.

자신이 농사를 지을 정도의 논을 가진 백성은 매년 생활고에 내 물려갔다. 논을 팔았다. 밭도 팔았다. 판 논이 소작인이 되었다. 그래도 소용없었다. 아이들의 학비를 버는 것조차 쉬운 일은 아니었다. 장남은 겨울이 되면 도쿄의 김집에 가고, 차남은 농한기에는 브라질 이민 첫걸음이라는 책을 아버지 몰래 열심히 읽었다. (중략)

자작농은 추락하여 소작농이 되었지만, 소작인은 이제 그 이하로 떨어질 곳이 없었다. 어쩔 수

2) 岡野幸江(2010)「平林たい子の労働小説-階級・性・民族の視点から」『國文學 解釋と鑑賞』至文堂, p.99

3) 中山和子(2009)「平林たい子殺す女・女の号泣-プロレタリア女性作家のあゆみ」『國文學:解釈と教材の研究』54(1)、學燈社, p.95

4) 中山和子(1999)「『夜風』-火のついた婚礼衣装/狂氣と子殺し/女性なる被支配階級」『平林たい子』親典社, p.87

없이 일하는 틈틈이 제사공장의 석탄을 나르기까지 했다. 땅 주인조차도 논을 팔고 전기 주식을 샀다. 공동제사회사에 투자했다.⁵⁾

자작농들이 현상유지를 위해 논밭을 팔고, 그 지주들로부터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런데 땅을 사들인 지주들은 소작료를 올리고 제대로 연공을 납부하지 않으면 땅을 환수하여, 사업가로의 변신을 꾀하기 위해 되팔기 시작했다. 그런 상황이 되고 보니 정작 농사를 지을 땅마저 없어져 버린 농민들은 당장 생계의 위험을 느낄 정도였다.

이런 궁핍한 생활에서 탈출하기 위해 농민들은 해외이민을 생각하기에 이른다. 일본인의 해외 이주는 1866년 해외 도항 금지령(쇄국령)이 풀리면서 시작되었다. 하와이를 시작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페루, 브라질로 이어진다. 브라질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들어 온 농업 노동자를 받아들였지만, 1888년 노예제도 폐지로 농업 노동자가 부족하여 유럽 국가에서 이민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탈리아 이민이 대우가 나쁘다며 반란을 일으키자, 이민 유입을 중단했다. 농업 노동자가 부족해 진 브라질 정부는 1892년에 일본인 이민자의 수용을 표명했다. 마침 일본정부는 미국, 호주, 캐나다의 이민 수용자 제한 강화로 새로운 이민 수용처를 모색하고 있던 중이어서 브라질이 탈출구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 국민들이 브라질 이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04년에 일어난 러일 전쟁으로 인해 경제가 곤궁하여 농촌의 가난이 심각하게 되었을 때부터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일본인 거주지이며 1908년 이후 약 100년간 13만 명의 일본인이 브라질에 이주했다.

이렇게 해외로의 이민을 생각할 정도로 농민들의 생활이 힘들어지자, 급기야 소작인들은 쌀의 무게를 조작하기에 이른다. 스에키치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쌀의 무게를 늘리는 모습을 보아왔다.

죽은 아버지는 너 말 들이 되의 양을 한 치 작은 상자로 계량해서 갔지만, 젠베에에게 다른 사람의 면전에서 되가 산처럼 수북하게 다시 계량해서 한 되 정도가 부족하다며 봉변을 당했다. 또 4말들이 한가마가 16관이라고 정해진 무게가 쌀의 질이 나빠 조금 적은 것을 고심해서 연공납부 전날 밤에 살그리미 가마니를 강물에 담가서 무게를 늘리고, 밤새 자지 않고 쪼물로 말려 쌀을

5) 「夜風」의 본문 인용은 『平林たい子全集』1卷(潮出版社, 1979)에 의함.

自分で作るだけの田を持った百姓は、年々歳々生活向きに追いつめられて行った。田を売った。畑売った。売った田の小作人になった。それでも追いつかなかった。子供達の学費だけを稼ぐのさえ容易なことではなかった。長男は冬になると東京の海苔屋へ行き、次男は、農閑期には、ブラジル移民手引草などという本を親爺にかくれて頻りに読んだ。(中略)自作農は落ちて小作農になったが、小作人は、もうそれ以下に落ちる所はなかった。仕方なしに仕事の合間には製糸工場の石炭運びにさえなかった。地主さえもが田を売って、電気株式を買った。共同製糸会社へ投資した。(p.124)

채워서 스에키치와 둘이서 운반해 간 적도 있었다.⁶⁾

그런데 이제는 소작할 땅마저 없어져 버린 실정이었다. 틈 만나면 지주들은 소작농으로부터 땅을 환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빈농 요노스케 집으로도 갑자기 공장 감독인 사노(佐野)라는 노인이 와서 내년부터 공장 뒤의 그늘지고 움푹 팬 땅의 연공을 올려 달라고 했다.

심부름 온 노인이 돌아가자 마누라는 마당의 변소로 가고 있는 요노스케를 뒤 쫓아와서 밭을 빼앗기면 이 식구에게 쌀이 모자라게 된다면 하소연했다. 장남이 내년 4월에 벌써 6학년 졸업이지만, 공장 뒤의 밭을 빼앗기면 할 일이 없었다. 그런데 거기에 다시 앞서의 노인이 되돌아와서, 거침없이 “그렇다면 금년을 끝으로 밭은 되돌려 받기로 하지요”라며 주인의 말을 전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듯한 말투였다. “저놈, 밭으로 연공을 받는 것과 공장에서 돈을 버는 이익의 규모가 다르니까, 드디어 밭을 뽕개서 공장을 넓히려는 계산이야.”⁷⁾

이렇게 농민들은 농사도 마음대로 짓지 못하고 지주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것 뿐 이었다. 그러나 보니 보통 3년 정도가 되면 몸이 이렇게 변하고 있었다.

류머티즘이 생겼고, 벼를 방망이로 칠 때에는 손목의 살갗에서 기름이 빠져나가는 듯한 ‘삐걱삐걱’ 하는 소리가 났다. ⁸⁾

이렇게 고생을 하며 일 년 내내 일해도 절반이상의 쌀을 지주에게 연공으로 바쳐야만 했지만 그나마 산업화에 밀려 벼농사를 지을 논이 없었다. 농사를 지을 땅이 부족해지자 사회전반에 쌀 부족의 전조증상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6) 死んだ父は四斗入の榊目を一寸内ばこに量って行ったところが、人の面前で善兵衛に榊に山になるように量りなおされて一升程の不足を突きつけられて恥をかいた。また四斗俵十六貫ときまった貫量が米の質が悪い為に少し少ないのを苦にして年貢納めの前の晩こっそり俵を川へ浸けて目方をつけ、夜中寝ずに藁火でかわし、米を詰めて末吉と二人で運んで行ったこともあった。(p.130)

7) 使の老人が帰って行くと女房は、庭の便所へ行く陽之助について来て、田を取り上げられたらこの頭数で米が足りなくなってしまうことを口説いた。長男は来年の四月はもう六年の卒業だったが、工場裏の田を取り上げられるすると、手伝わず仕事はなかった。と、そこにまた先刻の老人が戻って来て、あっさり、「それなら今年限り田は返して貰いましょう」と主人の言葉を伝えた。まるで待ちうけていたような調子だった。「あいつ、田で年貢をとると工場でもうける利益とじゃ桁がちがうものもので、いよいよ田を潰して工場をひろげずっていう算段だな」(p.130)

8) リウマチが起りかけて、穂を棒で打つ時には、手首の皮膚の中で、油のきれたような、ぎしぎしという音がした。(p.135)

같은 해, 10월에 발표한 「때리다(殴る)」⁹⁾에서는 인부들과 쓰레기 소각장 부근에서 살림을 꾸려온 사람들이 선로를 통해 쌀을 싣고 오던 짐마차를 가로막고 쌀가마니를 곡괭이로 내리쳐 탈취하는 ‘쌀 소동’을 다루고 있다. 이 역시 경제 위기에 따른 약자들의 반항으로 보며, 지주와 소작인을 ‘양지’와 ‘음지’로 구분하고 있다.

지주가 있는 곳에는 소작인이 꼭 있다. 자본가가 있는 도시는 필히 노동자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역시 양지와 음지의 관계이며, 흰 실과 검은 실로 엮은 허리띠의 선명한 색의 경계였다.¹⁰⁾

즉, 다이코는 지주=자본가=양지=흰 실이라면, 소작인=노동자=음지=검은 실이라는 상징적인 구조로 보고 있었으며, 이런 구조 속에서 가장 희생당하는 사람을 여공이라며 그들이 일하는 작업환경도 빠뜨리지 않고 있다.

여공들은 별정계 짓무른 손가락으로 느릿느릿 짐 등을 옮기며 “상사의 관리 검사 따위 우리들이 알게 뭐야!” 라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었다. 게다가 평소에는 돼지우리처럼 지저분한 방에 사람들을 쳐 박아놓고, 검사가 시작되면 급하게 위생을 하는 것이 알미웠다.¹¹⁾

여공들은 평소에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지만, 감사단이 오면 눈을 피하기 위해 주위를 깨끗하게 청소하기도 하였다. 이런 여공들의 열악한 노동현장의 심각성을 그린 작품으로써 동시대 작가이면서도 「야풍」보다 한 달 전에 발표한 사타 이네코(佐多稲子: 1904년-1998년)의 「캐러멜 공장에서(キャラメル工場から)」¹²⁾가 있다. 「캐러멜 공장에서」는 간다(神田)에 있는 캐러멜 공장에서 작가가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을 그린 작품이다. 이네코는 이 작품에서 여공에 대한 사회로부터의 억압을 잘 그려내어 프롤레타리아 작가로서 인정받게 된다.¹³⁾ 이네코가 밝히는 여공들이 일을 하고 있는 공장은 햇볕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서진 유리창 구멍으로 시궁창 냄새와 바람이 많이 들어왔다.

9) 1928년 10월 『개조(改造)』에 발표.

10) 「때리다(殴る)」본문 인용은 平林たい子(1969)『日本の文学』48 中央公論社에 의함.

地主のあるところには小作人が必ずあった。資本家のある都会には必ず労働者があった。そして、それはやはり日向と日蔭の関係であり、白い糸と黒い糸とに織り込まれた帯の鮮かな縞目であった。(「殴る」、p.31)

11) 女工たちは、赤くただれた指でのろのろ行李などを動かしたが「お役人の検査などが私たちの知った事かえ」という気持ちが誰にも働いた。それに、平生は豚小屋の様に汚れた室へ押込めるだけの人数を押し込んでおいて、検査となると急に衛生面をするのが憎らしかった。(p.133)

12) 「캐러멜 공장에서(キャラメル工場から)」는 1928년 2월 『프롤레타리아 예술(プロレタリア芸術)』에 발표.

13) 이상복(2014)「사타 이네코의 『캐러멜 공장에서』론-가부장적 억압과 계급적 억압」『일본문화연구』동아시아 일본학회, pp.263-280 참조

그녀들의 작업실 뒤편은 강으로 향해 있다. 그 작업실에는 종일 햇볕이 들지 않았다. 그곳 입구는 공장 안의 어두운 통로로 되어 있어, 빛은 강 쪽의 창문에서 밖에 들어오지 않는다.¹⁴⁾

그녀들은 온종일 그 판자 사이에서 서서 계속 일을 했다. 그것에 익숙해지기까지는 모두 발이 막대기와 같이 되어 쥐가 났다. 가슴이 답답하여 현기증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다. 저녁이 되면 몸이 완전히 차가워져 복통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었다.¹⁵⁾

이렇게 어둡고 지저분한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니, 여공들은 손가락이 별절게 짓무르고 현기증과 복통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런 러일전쟁 이후 자본주의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극심한 빈부 차이이기도 했다. 결국 농촌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던 농민들이 빈농으로 추락해 가다보니, 그 가정의 구성원들도 모두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공장으로 내몰린 어린 여공들의 문제가 심각하였다. 다이코는 그런 사회현상을 자신이 성장한 신슈를 무대로 노동의 대가가 충분하지 않는 사회 구조 속에 병들어 가는 약자들의 모습을 프롤레타리아 작가의 시각으로 노출시키고 있다.

3. 오센이 말하는 여자의 일생

오센의 남편은 온천수 우물을 파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워 26세에 근근이 17세의 오센을 만나 결혼하였다. 그러나 남편이 일찍 사망하자 오센은 실가로 돌아와 가게에 보탬을 주기위해 닭을 키워 계란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 그러나 오히려 매월 80전의 전기료 충당이 어려워 공장에도 다니고 있었다. 딸 세이코(清江)는 여공으로 기숙사에 들어가 있고, 아들 마사오(正男)는 도쿄에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혼자가 된 오센이 같이 농사일을 하다가 알게 된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다. 임신사실을 타인이 눈치 챌까봐서 부른 배를 천으로 둘둘 감아 숨기고 있었다. 그런데 세이지로가 그 사실을 알고 오센을 구타하기 시작한다.

14) 「キャラメル工場から」의 텍스트 인용은 佐多稲子(1980)『佐多稲子全集』1 講談社에 따름.

彼女達の仕事室の裏側は川に面していた。その室には終日陽が当らなかった。室の入口は工場内の暗い通路になっていて、明かりは川の方の窓からしか来ない。(「キャラメル工場から」、p.26)

15) 彼女達はまる一日その板の間に立ち通して仕事をした。それに慣れるまでにはみんな足が棒のように吊ってしまい、胸がつまって眩暈を起すものがあった。夕方になると身体中がすっかり冷えて腹痛を起すものもあった。(「キャラメル工場から」、p.26)

“오센 너 대단한 일을 저질렀군!”

어떤 때에는 세이지로가 오센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마을 소문으로 알고 와서, 송충이 같은 속눈썹이 긴 눈으로 오센의 배를 유심히 보고 확인하고서는 발끝이 하얗게 잘린 검은 버선발로 옆구리를 툭 찼다. 띠를 테처럼 둘둘 감고 작업복의 끈을 허리띠 위에 꼭 묶고, 오빠의 눈동자를 옆구리에 느끼며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는 오센은 차여서 오뎅이처럼 넘어졌다.¹⁶⁾

세이지로는 장남이면서도 소작인의 생활이 싫어서 스에키치에게 집을 물려주고 길으로 좋아 보이는 누에고치 건조를 시작했다. 그 역시 일하는 시간이 길고 몸도 좋지 않아 계속할 수 없는데다 일 년 내 내 수입이 발생하는 일도 아니었으므로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그런 세이지로가 처음에는 임신 사실을 숨긴 것에 화가 나서 오센을 구타하였으나, 이번에는 자신이 하는 일이 순조롭지 않아 화가 나서 분풀이 대상으로 삼고 있다.

농작물이 바쁜 계절을 검은 버선과 짚신으로 그럭저럭 보내고 와서는, 뭔가 말을 하며 핏대가 쓴 손으로 오센을 때린다. 때리고 나서는 점점 말라서 굳어져 가는 풀처럼 쓸모없는 인간으로 변해갔다.

“만약 오늘밤 태어난다 해도 세이코를 일부러 부를 수도 없고, 또 오빠에게부탁하면 또 어떤 꼴을 당할지 모르니……” 오센은 아무리 궁리해도 좋은 수가 떠오르지 않아 화장실에서 돌아가는 길에 마당에 서있었다. ¹⁷⁾

세이지로의 이런 행동을 통해 “사회저변에 억압받는 빈농이 여자를 더욱 억압”¹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실가에서 가족의 냉소 속에서도 점점 출산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진통을 겪으며 고통스러워하는 오센의 모습을 보면서 세이지로의 구타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16) 「お仙、大変な事をおめえは仕事して居るな!」

ある時には、清正次はお仙がはらんでいるという事を村の噂で知って来て、毛虫の様な、まつ毛の長い目で、お仙の腹をじろじろと見て、たしかめておいて爪先が白く切れた黒足袋でぼんと横腹を蹴った。帯をくるくるとたがの様に巻き、綿入絆纏の紐を帯の上できっちり結んで、兄の瞳を脇腹に感じながらうつむいて坐っていたお仙は蹴られて達磨の様に転った。(pp.125-126)

17) 農作物の忙しい季節を黒足袋と麻裏でのさのさとやって来ては、何かと言っては青筋の浮いた手でお仙をなぐる。なぐっては、ますます、乾いて硬くなって行く草のように使い道のない人間に変わっていった。「もし、今夜うまれたとしても、清江をわざわざ呼ぶわけには行かないし、また兄に折る悪しく来られたら、どんなに、えらい目に会わされるか…」お仙は思案にあまって便所のかえりを庭に立っていた。(p.126)

18) 中山和子(2009)「平林たい子・殺す女・女の号泣,プロレタリア女性作家のあゆみ」『国文学:解釈と教材の研究』54(1)、学燈社、p.95

멀리서 사기그릇이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오센은 뽕나무 기름이 타는 향을 마시면서 눈을 떴다. 그러자, 넓은 손바닥이 힘차게 옆얼굴을 때렸다. 맞은 옆얼굴의 피부가 찌르르하고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다. 오센은 비로소 뜬 눈으로 확실히 보았다. 다시 오센을 때릴려고 손을 들어 올리고 있는 뼈가 역세보이는 오빠의 얼굴이 흰 종이짱처럼 밝게 오센의 얼굴 위에 있었다. “일어나!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불은 토방에 깔아. 집 안에서 이번 출산을 하면 안 돼! 결코 안 돼! 이 도둑고양이가! 남사스럽게!”

겨우 의미를 알게 된 오센은 비틀비틀 걸리면 일어났다. 배속에서 태아가 발을 차고 몸이 한 장의 얇은 명주처럼 가벼웠다. 오센은 어두운 헛간으로 이불을 억지로 끌어 당겼다. 닭 똥 같은 차가운 것을 발뒤꿈치로 살짝 밟았다. 또 다시 무서운 복통이 밀려왔다. 오센은 나무통처럼 이불 위로 쓰러져 숨기 찬 토방의 흙 향기를 맡으며 정신을 잃었다¹⁹⁾.

방에서의 출산을 거부하는 세이지로 때문에 오센은 닭똥이 밟히는 헛간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세이지로에게서는 인간의 존엄성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며, 오센과 태어날 아이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었던 것이다. 임부까지도 구타의 대상이 되는 여성 학대의 현상이 너무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있다.

다이코는 「때리다」에서도 매 맞는 여성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주인공의 남편 이소키치가 감독에게 매 맞는 모습을 보며, 아내 긴코는 감독에게 대든다. 그러나 이때의 이소키치의 반응은 이외였다.

감독 쪽을 향해 비굴하게 굳어 있던 남편의 얼굴이 여자를 향해 빨간 달리아처럼 확 피었다. 남편은 뭐라고 소리쳤다. 주먹을 들어 올려 여자에게 내려쳤다. 그것은 늘 보아오던 주먹이었다. 그 주먹에 힘이 잔뜩 들어가 내려쳐졌다. 여자는 젖어있는 시멘트 지면에 세게 던져졌다. 소리 내며 울었다. 무너질 듯이 울기 시작했다. 철골을 파고드는 소리가 머리 위의 하늘에 울려 퍼지고, 멍하니 서 있는 감독 앞에서 남편은 부인을 때렸다.²⁰⁾

19) 遠くで瀬戸物が割れるような音がした。お仙は、桑の脂が燃える香を呼吸しながら目をあいた。と、ひろ掌が力いっぱい横顔を打った。打たれた横顔の皮膚が、びりびりとこまかくふるえたようであった。お仙ははじめてひらいた目を見定める。さらにお仙を打とうとして手を振り上げている骨のたくましい兄の顔が白い紙のように明るくお仙の顔の上にあった。「立て! 立たねか! 布団は土間へ敷けえ。家の中で、今度の産をするこたあならね! 断じてならね! この野良猫女が! 恥さらし!」やつと意味がわかってお仙はふらふらと立上がった。腹で胎児が足を突張ると、体が一枚の薄絹の様に軽かった。

お仙は暗い土間に布団を引摺り降した。鶏の糞らしい冷いものを足の裏にペタリと踏んだ。と、また恐い腹痛が押しよせて来た。お仙は樽の様に布団の上に倒れ、しめった土間の土の香をかきながら気を失った。(pp.131-132)

20) 監督に方へ向いて卑屈に固まっていた夫の顔が、女の方へ向いて赤ダリヤのようにパッと広がった。夫は何かどなった。夫は拳を振りあげて女の上に振り下した。それは見慣れた拳であった。そ

이소키치는 감독이 보는 앞에서 바로 긴코를 때린다. 이런 모습을 나카야마 가즈코는 “폭력적으로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폭력이 보다 하위의 사람에게 휘둘림을 당한다고 하는 이 내부박해의 폭력관계, 남과 여의 지배구조가 여기에 선명하게 정착되어 있다.”²¹⁾고 적고 있다. 이처럼 “탈취당하는 노동자, 지주에게 흑사당하는 소작인, 그들 밑에 남성들에게 폭행”²²⁾당하는 존재가 여자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여성의 지위는 사회구성원 중에서도 최하위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야풍」에서도 「때리다」처럼 “사회 구조가 지배층과 피 지배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계급적인 주종관계 최하위층에 속하는 소작인과 노동자 아래 남자에게 학대당하는 여자의 비참함”²³⁾을 오센을 통해 그리고 있다.

오센은 출산이 임박해 짐을 느끼고, 스에키치에게 도움을 청해본다.

“배가 아파?”

“응, 아무래도 낳을 것 같아.”

오센은 스에키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닫고 있는 발을 보고 있었다. (중략)

“응, 스에키치, 상담에 응해줘.”

“아아, 난 지금 그런 상담은 사절이야.”

스에키치는 불쑥 일어나서 닭장 문을 닫으러 갔다.²⁴⁾

스에키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 오센은 출산의 진통을 느끼며, 스스로 큰 가마솥을 부뚜막에 걸고 물을 가득 채운 채 울고 있었다. 이번에는 하는 수 없이 세이지로에게 도움을 청한다.

“오빠, 하고 오센은 새삼스레 가느다란 목소리로 오빠를 불렀다.

れが力いっぱい振り下された。女はセメントの濡れている地面に投げつけられた。声をあげて泣いた。割れるように泣き出した。鉄骨を打ち込む音が頭の上の空にひびいた、呆れて立っている監督の前で夫は妻を殴った。(「殴る」、p.38)

21) 中山和子(1999)「『殴る』—横光利一の評価 / 内部迫害の暴力 / 女の号泣」『女性作家評論シリーズ』8、新典社、pp.98-99

22) 阿部浪子(1986)「性差別を課題とした作品」『平林たい子 花に実を』、武蔵野書房、p.195

23) 이상복(2012)「히라바야시 다이코(平林たい子)의 『때리다(殴る)』론-가부장제도하에 여성의 위상과 폭력 양상」『일본문화연구』, 동아시아 일본학회, p.520

24) 「腹が痛え?」「ええ、どうもうまれるらしいわ」

お仙は、末吉の顔が見られない気がして、拭いている足を見ていた。(中略)

「なあ末吉、相談にのっておくれ」

「ああ、俺あ今、そんな相談は御免だ」末吉はつと立って鶏小屋を閉めに行った。(p.128)

“아무래도 저 애를 낳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물을 끓이고 있지만… 오빠도 화가 나겠지만 이번만큼은 참아 주세요. 네…”

“그런 말을 듣고 있을 처지가 아냐!”²⁵⁾

세이지로 역시 오센의 요구를 거절했다. 여성에게 있어 출산의 고통은 가장 큰 것이다. 산파를 부를 돈이 없었던 오센은 아픔과 고통을 혼자 견디어내며 사람의 눈을 피해 아이를 출산해야만 했다.

바깥에서 불일을 보고 돌아 온 스에키치는 오센의 일이 걱정되었다. 오센을 불렀으나 대답이 없자 헛간과 방 사이의 문이 있는 쪽으로 들어갔다. 스에키치는 무심코 문을 열었더니 오센의 덩불처럼 뒤엉킨 머리가 빛에 반사되어 보였다. 스에키치가 부르는 소리에 오센은 두더지처럼 웅크리고 앉아 머리를 들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거야?”

오센은 대꾸도하지 않고 밝은 목소리로 껄껄 웃었다.

“어떻게 된 거야?” 스에키치는 조심조심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코를 찌르는 듯 한 악취가 확 풍겼다.

“아이가 태어났어, 이렇게 되었어.”

오센은 흐트러진 머리를 끌어 올리며 웃었다. 곁에 접어져 있는 누더기를 방의 불빛에 비추자, 스에키치는 무심코 한발 물러났다. 접은 누더기 사이로 아이의 작은 머리가 보였다.

“누나!”

“아, 죽었어. 핫 하하하.”

“뭘!”

“아, 죽었어. 핫하하하. “

오센은 방보다 한단 낮은 헛간의 흙 위에 앉아서 처참하게 웃었다. 부스럭 부스럭 짚의 소리가 났다.²⁶⁾

25) 「兄さ」とお仙は改った細い声で兄をよんだ。

「どうも私あ子供がおまれそうだなあ、こうやってお湯を沸かしておくが、…兄さも腹がたつらが今度だけはこら得て遅れ。なあ…」

「そんな事をきいている場合じゃねえわ!」(p.131)

26) 「一体どうしたえ」お仙は返事をせずに、明るい声でからからと笑った。「どうしたえ!」末吉はこわごわとのぞいた。と、鼻が抉られる様な悪臭がぷんと来た。「子供がうまれたでなあ、こうしたわえ」お仙は乱れた髪を持上げてから笑った。傍にたたんである襦袢を室のあたりですかすと、末吉は思わず一足退った。たたんだ襦袢の間から子供の小さな頭が見えた。「姉さ!」「ああ、殺したわえハッハハハ」「なに!」「ああ、殺したわえハッハハハ」お仙は、室寄り一段低い土間の土の上に坐って凄く笑った。がさがさと藁の音がした。(p.139)

오센은 혼자서 아이를 낳아서 죽인 것이다. 그 모습은 처참했다. 우연히 만난 남자와의 임신으로 오센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 것이다. 그때 갑자기 결혼하여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조차도 생활이 빈곤하여 시어머니로부터 낙태를 종용받았던 일이 기억났다. 오센이 결혼했을 때, 시아버지는 중풍으로 누워있었고 시어머니는 후처로 남편에게는 계모였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바로 아이가 생긴 것이다. 이를 눈치 챈 계모는 일손 부족을 우려해 낙태를 위한 약을 오센에게 먹기를 권유했다.

일은 줄어 들고 생활은 어려워 졌다. (중략)

어느 날 시어머니는 하얀 가루약을 어디서 받아왔다. 부엌에서 찻잔으로 물을 떠와 거기서 마시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니 이젠 어쩔 수 없었다. 눈을 감고 꿀떡 들이켜. 약은 겨자 냄새가 확 풍기는 가루약이었다. 독약을 들이키는 기분으로 마시고 나니 배속에서 ‘와르륵’ 하고 이상한 소리가 났다. 그리고 무서운 설사가 시작되었다. 5일 동안 요강을 떠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래도 행운인지 불행인지 한번 생긴 생명은 오센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달이 차서 태어난 아이가 세이코 였다. 오센은 낮은 헛간에서 꿈결에 그 때 일이 환상처럼 떠올랐다.

이제 배의 통증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신경이 축 늘어져 있었다. 문득, 이러다가 죽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자의 일생’이란, 이렇게도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다.²⁷⁾

오센은 출산의 고통이 여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다이코가 밝히는 “여자의 일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1951년 10월 『문예춘추(文藝春秋)』에 발표한 「여자의 일생(女の一生)」을 통해 살펴본다.

아이가 2명 연 이어 태어났다. 세이코의 생활내용은 완전히 바뀌었다. 아이, 여자에게 있어 이 정도 강열한 기쁨과 광명이 있다는 것을 세이코는 알지 못했다.(중략) 세이코는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인내하였다.²⁸⁾

27) 仕事は少なくて暮らしは苦しかった。(中略)ある時姑は白い粉薬をどこから貰って来た。台所から湯呑へ水を汲んで来て、そこで吞めというのだった。そうなるともう仕方がなかった。目をつぶってぐっと二服吞みください。薬はぶんと辛子の香のする、恐ろくにかい散薬だった。毒を仰ぐ気持で吞み下すと、腹の底で、がらがらといやな音がした。それから恐ろしい下痢が始った。五日の間おまるを離せない程だった。それでも幸か不幸か、一度培われた生命は、お仙を離れて行きはしなかった。そして月みちでうまれたのが清江だった。お仙は、低い土間で、夢現で、その時の事を幻の様に思い出した。

もう腹の痛みがわからないように神経がへとへとにのびていた。ふと、これでもう死ぬんじゃないかとおもった。女の一生というものは、こんなにも苦しみ多いものかとおもった。(pp.132-133)

28) 「女の一生」의 본문인용은 『平林たい子全集』5巻(潮出版社,1977)에 의함.

子供が二人つづいて生れた。せい子の生活内容はガラリと変わった。子供、女にとってこのほど強

세이코는 여러 남자들을 만나면서 받은 많은 상처를 받았으나 아이의 탄생으로 인한 기쁨으로 괴로움을 잊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오래가지 못했다. 이번에는 여성으로서의 삶에 대해 자각하기 시작한다.

나는 남자에게 배신당했다. 어쨌든 평생 그대로 인종(忍從)의 생활을 계속한다면 옛 여성과 다를 바 없다. 어쨌든 조금이라도 여자의 운명을 바꾸지 않으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이따금 고개를 쳐들었다.²⁹⁾

그러나 세이코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을 인식하고 결국 자살하고 만다. 다이코가 이 작품 후기에서 “한사람의 평범한 여자가 여러 남자들에 의해 운명이 바뀌었다”³⁰⁾고 밝히고 있듯이, 남자에 의해 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여자의 일생”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 주인공 세이코에게 가장 행복을 주는 존재는 아이들이었다. 그런데 「야풍」에서의 오센은 자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죽이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여성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자식을, 갓 태어난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오센이 임신하게 된 상대남자에 대해서는 전혀 나타나있지 않다. 그만큼 임신과 출산이 여자의 몫이고, 아이에 대한 문제는 전적으로 여자 책임으로 인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로부터 매를 맞으면서도 아이를 지켜내어야 하는 책임감까지 사회로부터 부여 받았다고 할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은 히라바야시 다이코의 「야풍」을 통해 자본주의 도입으로 해체되어 가는 농민생활과 그 속에서 가장 고통당하는 여성의 삶을 중점으로 고찰하였다.

러일전쟁 이후, 일본 농촌의 생활모습이 많이 바뀌게 되었다. 농촌에서 평범하게 생활하던 자작농들은 갑작스럽게 복잡해 진 사회구조 속에서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 부족 등으로

烈な喜びと光明があったことをせい子は知らなかった。(中略) せい子は、子供のためにすべてを忍んだ。(「女の一生」、pp.361-362)

29) 自分は男に裏切られた、一生そのまま忍従の生活をつづけるなら、昔の女の同じだ。どこかで、少し女の人の運命を変えてやらなくては癪だ。こんな考えがちらちら頭を擡げるようになっていた。(「女の一生」、p.363)

30) 丹羽文雄(1977)「解説」『平林たい子全集』5巻、潮出版社、p.482

논밭을 팔고 소작농이 되었다. 이들의 땅을 싸게 사들인 지주들은 자본가로 급부상하기 위하여 되팔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 땅에 소작하고 있는 빈농과의 계약 때문에 땅을 쉽게 팔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주들은 소작료를 높게 책정하여 스스로 농사를 포기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빈농들은 농사를 포기 할 수 없었으므로, 모자라는 생활비 충당을 위해 틈틈이 공장에서 일을 하였다. 가족 구성원인 어린 여자들도 환경이 열악한 공장에서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공장으로 내 몰린 여공들은 햇볕이 들지 않는 어둡고 지저분한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니, 손가락이 별장게 짓무르고 현기증과 복통을 일으키기도 했다.

프롤레타리아 작가로 출발한 다이코는 그런 사회현상을 자신이 성장한 신슈를 무대로 노동의 대가가 충분하지 않는 사회 구조 속에 병들어 가는 약자들의 모습을 현실감 있게 노출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런 빈곤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가장 힘든 여성의 삶을 놓치지 않고 있다. 오센은 결혼하여 임신한 사실을 제일먼저 알게 된 시어머니로부터 부족한 먹거리와 노동력을 위해 낙태를 종용 당했다. 그리고 남편 사망으로 실가로 돌아와 있는 오센이 불륜으로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는 오빠로부터 만삭임에도 불구하고 구타당한다. 세이지로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도 오센을 구타한다. 그리고 출산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구타를 멈추지 않고 집안에서의 출산마저 거부한다. 세이지로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존엄성이나 동생의 건강 따위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이런 학대 속에서 오센은 불륜으로 임신했다는 죄책감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세이지로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스스로 인습(因習)에 물들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시도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야풍」도 「때리다」처럼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계급적인 주종관계 최하위층에 속하는 소작인과 노동자에게 학대당하는 여자의 비참함이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과도기의 농촌에서 최고의 희생자가 여성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이코가 부각시키고 있다. 다이코는 프롤레타리아 작가로서 초기 작품에서부터 자본가와 노동자를 중심으로 그리며,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학대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성의 삶을 ‘여자의 일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참고문헌】

- 이상복(2012)「히라바야시 다이코(平林たい子)의 『때리다(殴る)』론-가부장제도하에 여성의 위상과 폭력 양상」『일본문화연구』동아시아 일본학회
- _____(2014)「사타 이네코의 『캐러멜 공장에서』론-가부장적 억압과 계급적 억압」『일본문화연구』동아시아 일본학회
- 阿部浪子(1986)「性差別を課題とした作品」『平林たい子 花に実を』武蔵野書房
- 岡野幸江(2010)「平林たい子の労働小説-階級・性・民族の視点から」『國文學:解釋と鑑賞』至文堂
- _____(2016)「労働小説のなかの農村・農民-『夜風』から『植林主義』まで-」『平林たい子:交錯する性・階級・民族』菁柿堂
- 中山和子(1976)「平林たい子--初期の世界」『明治大学文学部紀要』通号 35、明治大学文芸研究会
- _____(1999)「『夜風』-火のついた婚礼衣装/狂氣と子殺し/女性なる被支配階級」『平林たい子』親典社
- _____(1999)「『殴る』-横光利一の評価 / 内部迫害の暴力 / 女の号泣」『女性作家評論シリーズ』8、新典社
- _____(2009)「平林たい子-殺す女・女の号泣, プロレタリア女性作家のあゆみ」『国文学:解釈と教材の研究』54(1)、学燈社
- 長谷川啓(2010)「プロレタリア文学とジェンダー女性表現における<労働>の発見」『国文学:解釈と鑑賞』75(4)、至文堂

논문투고일 : 2017년 09월 29일
 심사개시일 : 2017년 10월 17일
 1차 수정일 : 2017년 11월 06일
 2차 수정일 : 2017년 11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7년 11월 17일

〈要旨〉

자본주의로 인해 해체되어 가는 농촌의 생활상

- 히라바야시 다이코의 「야풍」을 중심으로 -

이상복

본 논문은 히라바야시 다이코의 초기 작품 「야풍」을 통하여, 러일전쟁 이후의 농촌까지 파고 든 자본주의 도입으로 궁핍해 진 농민생활과 고통스러운 여성의 삶을 고찰하였다.

자본주의화 되기 전까지 농촌에서 평범하게 생활하던 자작농들은 갑작스레 변한 사회구조 속에서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 부족 등으로 논밭을 팔고 소작농이 되었다. 이들의 땅을 싸게 사들인 지주들은 자본가로 급부상하기 위하여 되팔고 싶어 했다. 그러기 위해 소작인들에게 소작료를 높게 책정하여 스스로 농사를 포기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농사를 포기할 수 없는 소작농들은 틈틈이 공장에서 일을 하였고, 어린 여자들도 환경이 열악한 공장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결혼한 여자들도 부족한 먹거리와 노동력을 위해 임신을 해도 낙태를 중용 당했다. 그런데 불륜으로 임신을 하게 된 오센은 임부의 몸으로 사회적 불만을 품은 오빠의 분풀이 대상이 되었다. 이처럼 과도기의 농촌에서 확대당하며 살아가는 여성의 삶을 부각시키고 있다.

Rural life being dismantled by capitalism

- Focusing on “Night Wind” by Diko Hirabayashi -

Lee, Sang-Bok

This paper seeks to inquire into the destitute farm life and women's miserable lives by the introduction of capitalism into even the farming areas after Japan's victory in the Russo-Japanese War through an examination of “Night Wind,” one of Daiko Hirabayashi's earlier works.

Independent farmers who had been living an ordinary life on their farms before the advent of capitalism became tenant farmers instead, having sold their farms due to an insufficiency of funds children's educational costs and living expenses in a newly transformed social structure. Landowners who had bought up the tenant farmers' land for a low cost wanted to resell them to others so that they could quickly rise as capitalists. For this purpose, they raised the tenant farmers' farm rent very high and led them to give up on farming. But the tenant farmers who could not give up on farming, worked in factories even in their leisure hours and even young women had no choice but to work in factories with poor working conditions. married women were often advised to have abortions when they became pregnant because of a lack of food and labor power. The character Osen who had gotten pregnant in an extramarital affair became the target of her brother's wrath, who was frustrated with society. Likewise, such women who were being abused in the rural areas in this transitional period are depicted in Hirabayashi's work.